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12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4대 금융’ 주총 안건 모두 찬성…의결권 자문사 ISS가 달라졌다
서울경제 https://zrr.kr/Dj47Ak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까지 4대 금융지주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로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던 ISS가 이사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달라졌다는 분석

S&P "韓 금융, 중동사태에도 탄탄…감당 가능" 평가, 왜?
아이뉴스24 https://zrr.kr/Ptk6jY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금융기관들이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과 원화 가치 하락압력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엄격한 리스크 관리, 외화 유동성 버퍼,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혼란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

코스닥 활성화 은행이 나선다…기업은행, TF 본격 가동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mC37vQ

IBK기업은행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IBK 코스닥 활성화 TF’ 구축 및 본격 운영 예정
TF 목표는 코스닥 상장사와 예비 IPO 기업 대상으로 리서치 보고서 발간을 확대하고 국내외 IR 지원을 연계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 확대

200억 규모 '반값 엔화' 회수 나선 토스뱅크
한국경제 https://zrr.kr/FIHbez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엔화를 정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오류를 낸 지 하루 만에 해당 거래를 되돌리는 절차에 착수
은행 측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전산 오류로 발생한 거래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 있는 점에서 논란거리

'빚투 주식' 반대매매 3배 뛰었다… 가슴 졸이는 개미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1Y36R

증시가 요동치고 '빚투'는 사상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이달 들어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개인투자자의 빚투가 늘어난 상황에서 증시 급락으로 대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늘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

널뛰기 장세가 ‘단타’ 조장…불장보다 거래대금 더 태웠다
이데일리 https://zrr.kr/KE1bbH

이달 증시 거래일(3~11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40조원으로, 이전 역대 최대치인 지난 2월 일평균 거래대금 32조 2340억원을 앞지르는 수치
또한 이달 들어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단타성 손바뀜이 더욱 활발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역마진"…계약 현황 첫 공시
연합뉴스 https://zrr.kr/lzHXIe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

행동주의 압박에… DB손보, 주주에 직접 호소
머니투데이 https://zrr.kr/dbmbTI

DB손해보험는 올해 첫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전방위 공세가 거세지자 주주에 직접 호소
앞으로 상법개정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이 커질 전망이어서 보험업계는 행동주의펀드가 보험사 경영에 직접 관여해 장기 비즈니스 특성과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

"가상자산, 우리가 지킨다"…전문 수탁사, 은행과 손잡고 고도화 경쟁
데일리안 https://zrr.kr/Sh6gZo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들이 법인 투자시장 개화에 대비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단순 보관을 넘어 보안, 내부통제, 회계 대응, 기관 맞춤형 서비스 역량을 앞세워 선제 경쟁에 나서는 모습

‘월가*가상자산 콜라보’…24시간 개장 시대 내년 열린다
매일경제 https://zrr.kr/UpZFYq

미국 나스닥이 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하며 ‘24시간 시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원유 등 실물 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폭발적 증가
나스닥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모회사와 협력해 규제된 전통 시장과 온체인 시장을 잇는 관문을 구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